

일상·취업 시장 파고 드는 'MBTI 열풍'

외향·내향(E·I)·직감·현실(S·N) 등 4가지 알파벳 조합 16가지 성격 유형 구분 "다른 사람 빠른 이해 매력" "사람 성향 수천가진데...과몰입 안돼" 부정 시각도

■나의 성격유형은?

ISTP	백과사전형
ISTJ	세상의 소금형
INTP	아이디어뱅크형
ENFP	스파크형
ESTJ	사업가형
INTJ	과학자형
ENFJ	연변능숙형
ISFP	성인군자형
ESFJ	친선도모형
ESTP	수완좋은 활동가형
INFP	잔다르크형
ENTJ	지도자형
ENTP	발명가형
ISFJ	임금 뒤편의 권력형
ESFP	사교적인 유형
INFJ	예언자형

전국적인 'MBTI 열풍'이 세대를 거슬러 인기를 끌고 있다. 10~30대 젊은 층에서 소통·공감대를 만들며 인기를 끈 데 이어 최근에는 50~60대 사이에서도 MBTI를 아는 이들이 늘고 있다.

MBTI는 마이어스(Myers)와 브릭스(Briggs)가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만든 성격 유형검사 도구다.

이 검사는 피검사자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E·I), 직감·가능성을 중시하는지 경험·현실을 중시하는지(S·N), 상황을 받아들이는 때 논리에 집중하는지 사람과 관계에 집중하는지(T·F), 계획·목적 중시하는지 상향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지(J·P) 등을 구분한다. 검사 결과로 나온 4가지 알파벳을 조합해 총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한 유형으로 피검사자를 구분한다.

예컨대 검사 결과 내향적이고, 경험·현실을 중시하면서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상황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INTP' 유형이 나오는 식이다.

MBTI 검사 자체는 1944년 개발됐으며, 국내에도 도입 시점은 지난 1990년 전후로 추정된다.

오늘날 MBTI 유형은 지난 2020년 안팎으로 10여 분만에 할 수 있는 '무료 성격유형검사' 웹 사이트가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자신의 성격을 쉽게 알리고, 다른 사람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다. 또 이전에 혈액형, 별자리 등으로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설문지로 분석한 결과'라는 사실이 믿음을 더했다.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만화 캐릭터, 정치인까지 자기소개 삼아 MBTI 유형을 공개하곤 한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MBTI별 특징, 공합, 직장생활 등을 분석한 콘텐츠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다.

MBTI는 일상 생활에도 파고들었다. 일상 대화부터 소개팅 등 첫만남 자리, 회식 자리 등에서도 MBTI는 '단골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운세뽑기 가게는 아예 'MBTI별 운세 뽑기'를 간판에 내걸었고, 광주신세계,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는 'MBTI별 나에게 맞는 선물 찾기', '나를 이해하는 MBTI 치유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전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오는 19일부터 'MBTI를 활용한 자기이해와 진로사결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취업 상담에도 활용되고 있다.

취직 시장에도 MBTI가 등장했다. 광주의 한 기업은 채용 공고에 영업직을 채용하면서 우대 조건에 "재기발랄한 ENFP, 만능 재주꾼 ISTP, 숫자에 밝고 상냥한 ESTP 환영한다"는 문구를 실기도 했다.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MBTI 유형을 소개하러거나,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장단점을 소개하라는 채용 공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MBTI에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가벼운 대화 주제로서는 괜찮으나, '과몰입'을 해선 안된다는



한 시민이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MBTI 무인 가게'에서 운세를 보기 위해 자신의 MBTI 유형에서 뽑은 플라틱 볼을 깨뜨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것이다. 일각에서는 MBTI 검사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기 보고식' 검사인 만큼 왜곡 가능성이 크데다, 16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못박아버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막는다는 것이다.

박상윤(30·광주시 동구 용산동)씨는 "사람 성향이 수천가지인데, 고작 16가지로 낙인찍는게 말이 안된다"며 "사람을 간단히 알고자 하는 건 좋지만, 오히려

깊게 알고려고 하는 생각을 막고 '이런 성격인가 보다'라고 몰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채준호(24·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상대방과 말문 열기 좋고, 대화나 행동을 이끌어가기 좋다. 과학적인 근거를 떠나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며 "MBTI 성향에 따라 상대 대화 성격을 맞춰갈 수 있어 편하다. MBTI가 없었을 때보다 사람 만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교수공채 과정 포기 종용” “전씨 회고록은 정치 선동 위한 선전 활동”

전남대 감사 착수

전남대가 단과대학 교수 공채과정에서 보직교수가 지원자에게 포기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14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교수 공개채용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된 A씨가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A씨는 "면접 심사 전에 자신이 응모한 학과의 보직교수 B씨가 특정 교수와 친분을 제기하며 응모를 포기하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남대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에도 이런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전남대는 A씨가 최종면접에서 탈락하자 2순위자를 최종 면접 대상으로 선정하려는 건 계획을 총장 지시로 보류한 상태다.

전남대 홍보실 관계자는 "A씨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고 감사위원회에 학내 인사 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해 금명간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박구용 전남대 교수 주장

'전두환 회고록'은 자서전이 아니라 정치 선동을 위한 프로파간다(선전 활동)에 가깝다는 인문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14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에서 '5·18정신의 역사성과 철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발표문에서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인) 전두환 회고록은 전두환의 자서전이 아니라 그를 통해 미래 정치를 꿈꾸는 자들의 책략"이라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살인자의 회고록은 아래의 정치 선동을 위한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며 "5·18 당시 광주에서 양민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발표명령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두환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문제에 접근하지 않는다. 회고록은 5·18을 계속해서 정치적 담과 분쟁의 기준으로 끌고 가려는 술수"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5·18의 가치에 대한 인정 대 무시로, 편

가르기를 하면 할수록 내란죄를 저지른 살인자조차 한몫 챙길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한 "(끊임없는 왜곡 시도 등으로 인해) 5·18은 종결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감고 광장을 유린하는 자들에게 5·18은 자신들의 적과 그 적을 비호하는 세력의 상징이고 심장이라는 게 박교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저들에게 5·18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다. 저들이 쉬지 않고 5·18을 비열한 방식으로 유린하는 까닭"이라며 "공무원 취업 목적(5·18유공자 자녀는 급수저 주장)이나 보습금 과다(5·18 폭동자 1인 6억, 8억 주장)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는 저들의 단결을 위한 정치적 행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수괴이자 살인자인 전두환조차 자신이 (회고록을 통해) '5·18의 제물'이라고 항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으로 5·18을 뒤돌면서 교란을 노리고 있다"며 "5·18이 계속해서 정치적 은폐와 왜곡, 그리고 망각의 프레임과 싸울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고 짚었다. /김형호 기자 khh@

“강제징용, 일본 사죄가 먼저”

강제동원시민모임, 정부 '민관협의회' 불참키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대위변제' 방안도 거부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와 지원단체는 '일본 사죄가 먼저'라며 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광주에 근거지를 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4일 "강제동원 관련 외교부의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송 대리인단과 긴급 좌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양 할머니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며 사죄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시민모임을 통해 밝혔다.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에서 일하고도 단돈 10

원 한 닢도 못 받았다"며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위 '대위변제' 방안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빚을 갚는다는 의미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다른 국내의 민간업체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이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기업들은 3년 8개월째 배상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당 기업의 국내 특허권 등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 명령을 받아냈지만, 해당 기업들은 명령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